

## 충남도 경제 순풍, 태극제약과 MOU 체결

- 의약계 유망 중소기업 태극제약(주) 부여 초촌면에 투자확정



충남도가 국내 유망 중소기업인 태극제약(주)의 부여군 유치를 확정하고 지난 9월에 이어 2주 만에 충청남도·부여군·태극제약(주)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이창구 태극제약(주) 대표이사, 김무환 부여군수는 10월 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부여군 초촌면 응평리 일원에 신규 투자 및 도와 부여군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협의하고 적극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태극제약(주)은 부여군 초촌면 응평리 342-9번지 일원의 53,000㎡에 2014년까지 총 1,350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이전 및 신규투자 하기로 하였다.

태극제약(주)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2008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09년 건축공사 및 기계설비, 부대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투자하여 2009년부터 건강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고 2012년 의약품, 2013년 화장품 등 2014년까지 모든 생산라인을 가동할 계획이다. 생산 초기에는 약

430억의 매출을 보이며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350억의 매출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충남발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MOU체결로 충남도에 향후 6년간 1,715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224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로 인해 물가상승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는 부여군과 함께 국내 유망 중소기업인 태극제약(주)의 유치를 위해 꾸준한 설득과 협상으로 부여군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국민 건강의 일익을 담당하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 유망 중소기업인 태극제약(주)을 우리도에 유치키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환영한다”며 “「강한 충남, 1등 경제충남」을 이룩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무환 부여군수는 “국내 유망 중소기업인 태극제약(주)이 부여군에 동지를 틀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이완구 충남도지사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 태극제약(주)은 부여군 경제발전의 구심체 역할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며, 태극제약(주)의 사업 로드맵이 순조롭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도, 성과중심 조직운영으로 도정성과 극대화

- 성과관리(BSC), 불필요한 사업 배제, 책임경영제 등



충남도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 서만철 공주대 교수)에서 2008년 성과관리 중간점검 결과 8월 말 현재 1,874개 성과관리 지표 중 정상추진 1,723건, 지연처리가 151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요성과로는 ▲「실국장 책임경영제」 전실·국 확대 운영을 통한 도정의 생산성 향상 ▲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를 통해 충남의 인삼수출액 4,000만 불 달성 ▲도지사 해외 투자유치 순방 및 해외투자사절단 파견 등을 통한 921백만 불 외자유치 MOU 체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2010 대백제전 국제행사 승인 ▲도청이전신도시건설 특별법 및 시행조례 제정 ▲안전충남 건설을 위한 소방관서 증설(1서 5센터 2구조대) ▲지역주민과 130만 자원봉사자의 헌신적 노력으로 청정해역을 이루어 내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자연처리 사항은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 체계 마련 부진(교육과학기술부 예산확보, 선정공고 등 사전절차 지연) ▲해외 수출 및 마케팅 활동 부진(쓰촨성 대지진 여파로 중국정부의 대외활동 축소 및 보류)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어려움(부동산 경기침체, 공동주택 준공 지연) 등 151건으로 주요원인은 중앙정부의 일정조정 등 외적요소, 중국 쓰촨성 지진 등의 불가항력적인 대외적인 원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당초 목표된 사업의 연내 완수는 물론 중간 점검결과 여건변화로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재검토 등을 통해 효율적 도정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 출연기관(12개)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실국장 책임경영제(semi-CEO) 운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민선4기 전반기 도지사공약 이행도 평가에서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에서는 전국 2위,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웹서비스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등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복지수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생활공간개선 평가 최우수 등 총 39건이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한 만큼 실적평가가 이루어지고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조직 내에 확실하게 하여 성과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발전시켜 도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도, 「2009년도 균형발전 대상사업」 확정

- 도내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 22지구 842억 원 투자

충남도는 10월 14(화)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대학교수,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균형발전 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에 총 22개 사업에 총 84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2009년도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은 기 수립한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중에서 매년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산으로 확정하는 집행 계획으로 분야별 세부내역은 ▲공주시 문화관광지 조성 등 10지구 541억 원(문화·관광분야) ▲금산군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3지구 77억 원(기반시설 확충분야) ▲금산군 인삼명품화 사업 등 8지구 170억 원(지역특화 분야) ▲청양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1지구 54억 원(생산유통 분야) 등이다.

충남도는 천안, 아산, 당진 등 서북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공주·보령·논산, 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 등 8개 시·군에 2012년까지 5개년 간 총 4,79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충청권 공조체제, 2010년 '지역 방문의 해' 유치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충남, 대전, 그리고 충북은 지난 10월 21일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방문의 해' 사업의 공모심사 결과 2010년 공동 사업주체로 선정되었다.

충청권 3개 시·도는 이번 공모심사에 'Visit Start! Vision 2010! - 충청관광의 세계적 브랜드 실현'이라는 주제로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사업을 신청하여 전라북도과 경상권(부산, 울산, 경남)을 제치고 최종사업자로 확정되었다.

충남은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사업 추진으로 '2010 대백제전' 국내·외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의 IASP(국제사이언스파크협회) 총회, 충북의 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등의 국제행사와의 상호 협력이 가능하여 지역 간 관광분야 시너지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방문의 해를 통해 7개 문광부 선정축제의 명품화와 유류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서해안 관광활성화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잠재해 있던 충남의 관광매력을 적극 홍보하여 관광산업을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충남과 충북은 지난해 말부터 독자적으로 방문의 해 사업 유치를 준비하였으나, 충청권 광역관광협력의 필요성 대두와 서울시의 공모참여에 대한 대안으로 충청권 공동유치가 추진되었다.

이완구 지사가 지난 5월 공동개최를 최초로 제안하였고 이에 8월에는 충청권 시·도지사가 공동유치 협약서를 체결하여 마침내 방문의 해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다.

앞으로 충청권 3개 시·도는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은 테마별 연계사업, 공동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자체사업 등으로 추진되는데, 사업의 성공은 3개 시·도의 긴밀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추진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전, 충북, 충남이 행정구역의 한계를 넘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역사·문화·정서 등에서 그 뿌리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충청권의 공동사업추진은 광역관광발전을 위한 좋은 시도로 평가된다.

## 충남도, 마을별 e-고향카페 구축한다

- 2012년까지 도내 2,113 법정리 마을대상



충남도는 U-충남, U-농촌 구현의 일환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마을별 카페를 개설하여 마을 소식을 주민 및 출향인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사이버 커뮤니티를 (주)다음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구축한다.

김동완 행정부지사는 11월 4일 사회의실에서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문효은 부사장과 『e-충청남도 고향카페』 구축에 대한 공동 추진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며, 도내

2,113 법정리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는 서버제공, 표준카페 개설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며, 충남도는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다음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운영자 교육과 다양한 이벤트 등 운영활성화를, 시·군에서는 마을별 카페구축 및 운영 지원,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e-충청남도 고향카페』가 활성화되면 정보화 소외지역인 읍·면지역 주민과 대도시 주민간의 정보 격차가 해소되고 마을 카페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로 출향인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마을 특산품 홍보를 통한 농어촌 소득증대 및 온라인으로 고향의 정서와 고향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 고향정보 사랑방 역할도 하게 된다.

김동완 행정부지사는 “이제는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고향소식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있고, 고향의 변화된 모습과 발전된 모습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출향인들의 고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충남, 전국 최초로 공공디자인 엠블렘 제작

- 공공디자인 홍보로 대외적 위상 제고와 민간부문에 확산 기대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디자인 엠블렘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지난 8월 문화적 가치가 가미된 통합적 도시계획과 경관조성 및 도시재생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구상』을 발표하면서 도정 전반에 걸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명품 충남을 구현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내비쳤던 충청남도가 공공디자인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식 확산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엠블렘을 제작한 것이다.

이 엠블렘의 도안은 나뭇잎 모양과 『Renovate Chungnam』(재생충남)이라는 서체를 조합한 것으로서, 자연친화적이고 경쾌한 이미지인 녹색과 청색 계열의 나뭇잎 형상에 둘러싸인 도시공간이 자연의 품안에 안겨있는 아늑하고 쾌적한 충남 미래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충남 공공디자인의 비전인 『Renovate Chungnam』을 다양한 서체 디자인을 사용하여 충남 공공디자인의 주제인 “충남, 공공디자인으로 자연을 품다”와 비전인 “재생 충남”을 유연하고 역동적이며 강한 의지로 담고 있다.

충청남도는 앞으로 각종 공공디자인 관련 행사 플랜카드와 안내 팸말, 문서, 인쇄물 등에 이 엠블렘을 삽입하여 활용함으로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사

업의 對 도민 홍보를 통하여 민간부분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설립,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 등을 준비 중이며, 공공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자문단 운영규정」 제정과 자문위원회(30명) 구성을 마치고 충청남도과 직속기관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자문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창현 충청남도 건축도시과장은 “공공디자인 엠블램을 전국 최초로 제작한 만큼 이를 적재적소에 적극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우리道 공공디자인의 위상을 높이고 대내적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민간부분에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입장권 할인해준다.

- 서해안유류피해 복구 자원봉사자, 도내 유료관광지 무료 또는 50~20%할인 혜택

충남도는 지난해 발생한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복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2009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입장권 구입시 2009. 12. 31까지 도내 주요관광지 무료·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꽃박람회 입장권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는 충남도내 주요시설은 독립기념관, 온양민속박물관, 천리포수목원과 안면도 오션캐슬 등 숙박시설을 포함한 40여개의 관람·숙박시설로 무료 또는 50~20%의 할인가격이 적용된다.

또한 서해안유류피해복구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꽃박람회 입장료를 최대 50%이상 할인해 주며,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충남도청 도의 새마을과(042-251-2243)나, 서해안유류대책본부(041-673-8672)에서 자원봉사 인증표를 교부받으면 된다.

서해안유류피해복구 자원봉사자·유료입장권 소지자 혜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꽃박람회 홈페이지([floritopia.or.kr](http://floritop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충남도, 화력발전시설과 온실가스 감축 협약 체결

-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9,515억 원을 투자, CO<sub>2</sub>배출원 5% 감축키로

충남도는 11월 28일(금)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부단체장, 기후변화정책자문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대책 2008년 최종보고회」를 갖고 도내 화력발전업체와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화력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도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보령·태안·당진·서천화력 등 도내 4개 업체와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9,515억 원을 투자하여 CO<sub>2</sub>배출원단위(전기 1kwh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CO<sub>2</sub>량)를 882g/kwh에서 832g/kwh로 5%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재 도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기·수도 절감분에 대한 인센티브로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완구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2008년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적 활동의 원년임을 확인하고, 2009년도에는 학교·시민단체 등 각 참여주체가 함께 하는 기후변화대응 인식공유와 실천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충남도, '2008 태안 국제환경포럼' 개최

- 1년간의 복구 노력을 발판으로 국제적인 관심과 생태복원 및 지역발전방안 도출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1년을 기념하는 '2008 태안 국제환경포럼'이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충남 태안 안면 오션캐슬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충남발전연구원과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 공동주관으로 환경·생태·건강·방재분야 등 1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NGO,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며, 특히 사고 당시 파견되었던 유엔 및 국제 환경 전문가가 참석하여 지난 1년간의 복구 노력과 현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환경 복구와 국제 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이번 포럼은 유류유출사고의 극복 과정과 130만 자원봉사의 승리에 대한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해양 유류오염사고 극복과 재인식 ▲생태·건강 영향평가 및 환경복원 방안 ▲사회적 영향평가 및 자원봉사문화와 환경보전 ▲지역이미지 개선 및 지역발전 추진 전략 등 4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지난 해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는 한국 해양오염 역사상 가장 큰 환경재앙이었다. 다행히 사고 직후 130만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내·외 기관들의 협조로 서해안은 빠르게 평온을 되찾아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전제하며, “이번 포럼이 서해안 유류유출사고가 가져온 환경적·사회적 충격의 정도와 의미를 되짚어보고 생태계 복원과 지역 삶의 질 회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서해안이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고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포럼기간 중 (재)희망제작소가 주관하는 초청세미나가 동시에 개최되며 세미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가 서해안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가 지역주민에 미친 영향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지역사회의 복지 ▲해양오염사고와 지역사회의 위험관리 등 3개 세션으로 구성·진행되었다.

## 충남도, 공중화장실 발전 전국 최우수상 수상

- 행정안전부, 2008년도 전국 자치단체 종합평가 결과

충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08년도 전국 공중화장실 발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기관 선정 배경으로 여성 및 장애인 등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문화가 살아있는 공중화장실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 2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발전 시책』을 추진하여 전체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지난 4년간 지역특색과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137개소에 153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산재된 불결한 재래식 간이화장실 52개소에 대해 총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첨단 간이화장실로 교체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2010년까지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전용 화장실 조성률과 여성변기 비율을 남성대비 1.5배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을 위한 수유시설, 파우더룸 등 각종 편의시설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여성과 장애인전용 차량형 이동화장실을 금년도에 6개 시·군, 2009년에 5개 시·군, 2010년까지 나머지 4개 시·군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 2008년 충남발전연구원 10대 뉴스



### 1. 연구원 독립 신청사 건립

“와~ 드디어 우리집이 생겼어요!” 1995년 개원 이후 줄곧 셋방 살이했던 설움을 털어내고 3월 14일 충남 공주에 위치한 독립 청사로 이전하면서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연구원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힘겨운 출퇴근을 감안한 연구원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센스까지. 공기 좋고 새 소리나는 연구원으로 놀러오세요~

### 2. 연구원 예산 100억 돌파

100억? 규모가 큰 국책연구원과 비교해보면 적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우리 연구원을 운영하게 해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총80여명의 연구원 모든 직원들은 물샴틈 없는 절약과 쓸데없는 낭비요소를 제거하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조직개편  
8개팀을 1실·3부·1센터로**

충남도민의 '싱크탱크'인 충남발전연구원(충발연)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 통·폐합으로 예산을 줄이고 일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충발연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능 중심의 8개 팀을 일 중심의 1실·3개 부·1센터로 통합·운영된다.

〈충청투데이 12월31일자〉

**3. 연구원 조직 개편**

8개팀을 1실 3부 1센터로 개편! 연구 역량 결집으로 시너지를 높이고 유연한조직 운영을 통한 협력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랍니다. 연간 2,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연구기관 최초 임금피크제와 성과관리제 등으로 시작된 지속적 인 경영혁신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쭉~



**4. 충남리포트 발간**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또 하나의 인기 연구물! 바로 '충남리포트' 발간을 꿈지 않을 수 없네요. 올해 처음으로 월 1회씩 발간되었던 충남리포트는 우리 충남도정의 현안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월 1회로 한정하지 않고 수시 발간체제로 전환하여 연구원의 경쟁력 강화에도 한몫 단단히 하렵니다.

**5. '충청지역연구' 학술지 발간**

여러 우여곡절 끝에 발간기로 결정한 우리 연구원 최초 학술지 '충청지역연구'.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속에 창간호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우리 지역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연구의 틀을 마련하고 정책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 6. 소도읍육성사업 선정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충남 소도읍육성사업이 올해에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바로 연구원에서 수행한 논산 연무읍, 보령 웅천읍, 홍성 광천읍 등 3개 소도읍이 최종 선정된 것이지요. 이곳에 2011년까지 각각 200억 원 이상이 투입돼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합니다. 막상 연구할 때는 힘들고 머리 아프지만 이런 결과를 보며 연구의 보람을 느낍니다. 팍팍!

## 7. 도산하기관 2년 연속 경영평가 1위

올해 경영평가 1위는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한 번도 하기 어려운 1위를 두 번이나 연속으로 차지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연구원 모두의 노력의 결실이며, 또한 더욱 열심히 연구에 매진해달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2009년에도 1위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당근을 더 주세요!



## 8. 복지카드 제도 도입 및 동호회 활성화

나마도라, 휘둘러, G3, 모비딕...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호회 이름들이랍니다. 연구는 물론 취미활동 역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취지로 처음 도입된 복지카드도 연구원 생활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답니다.

## 9. 안식년제 도입

"I'll be Back." 연구원의 지식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된 안식년제. 연구원을 떠나 새로운 지식과 정보로 무장하여 되돌아오면 연구원 안에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양질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은 1년 동안 자릴 비워도 책상 빠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 10. 한밭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연구협약 체결

우리 연구원은 다양한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상호 연구와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갑니다. 지역의 연구원 모두가 그렇듯 모든 분야의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연구원 수, 연구 시간과 양의 절대적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공동 연구는 물론 매니징, 코칭 역할을 합니다. 보여주기식의 협약이 아닌 진정한 상호 교류를 통해 연구의 질적 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 ■李정부 "충청경제협의체 공동대응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고수 방침과 관련 대전, 충남·북이 충청권경제협의체를 통해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영향을 분석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세정책이 결국은 지방재정엔 큰 타격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측과 현 대덕연구단지의 문제점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주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11월 6일 충남대 사회과학대에서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충남발전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과 지역발전전략' 학술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수도권규제완화와 지역발전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충청권경제협의체를 통한 공동대응방안 모색과 더불어 충청권 시민단체와 연계해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개정 저지를 위한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 실장은 더불어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과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회체와 비수도권 시민단체, 전문가 등 비수도권 지역과 연대해 수도권규제완화에 대응한 실천행동을 주문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최근 과학기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충청권 발전전략’을 발표한 대전발전연구원 황혜란 연구원은 “지난 30여년간 대전지역에 자리잡은 대덕특구가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지역경제상승 효과부문에선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이 자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으로 5년간 지방재정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있는 재원 중 43조 7,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당장 충남도에 내년도 상당부분 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예상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 주관한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사장인 안정선 공주대 교수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국민권리를 찾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이날 제기된 문제들과 대응 방안을 토대로 정부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중도일보, 2008.11.07 1면

## 충남발전연구-과학기술정책연구, 연구협약 체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STEPI)은 11월 14일 오전 11시 30분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양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연과 과기정 간 지역경제와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경쟁력 있는 정책 개발에 기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공동연구 수행 ▲양 기관의 특화된 지식 정보의 상호 교류 및 확산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세미나와 교육 기회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교류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연 김용웅 원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종합연구원과 과학기술 국책연구원 간 연구협력은 상호 이질적인 관계가 아닌 보완되고 습득해야 할 불가분의 관계임을 의미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충남의 과학기술정책연구에 많은 도움을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플러스충남정책포럼, 전국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성료

‘충청지역 갈등관리 사례연구 및 상생협력 모색하는 계기 마련’



지역의 갈등예방과 상생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원생이 한데 모였다.

지난 11월 26일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주관사 충남발전연구원, 이하 상생 갈등포럼)’이 주관하고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충청남도가 후원하는 ‘제1회 전국대학(원)생 우수논문발표대회’가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이완구 충남도지사,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그리고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발표참가팀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충청지역 상생협력 갈등관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총 16편의 논문이 접수, 1차 심사를 통과한 8개 논문에 대한 발표대회 및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영예의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대학원생 부문’에 ‘공공갈등 사례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갈등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정성근·송봉근 군(성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이, ‘대학생 부문’에 ‘천안·아산 간 갈등과 그에 따른 협력방안 조사연구’를 발표한 이



진성 군 외 4명(단국대학교 행정학과)이 차지했다.

심사위원장인 홍민기 충주대 교수는 '모든 논문에 학생들의 열정과 땀이 묻어 나서 보기 좋았다.'면서 '논문의 간결성, 단순성 부족과 선별적 용어 사용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앞으로 문제의식을 심화시키면서 상생협력방안연구에 매진한다면

갈등관리전문가로서 거듭나는데 손색이 없을 것이다.'라고 총평했다.

상생갈등포럼 관계자는 '채택된 우수논문은 지역의 갈등관리 교육 및 정책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첫 회였던 만큼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일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고품격 연구수행 할 터

충발연, 올해 사업구상 정기이사회에서 밝혀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의 2009년도 사업구상이 나왔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난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발연 이사진,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과 道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2008년도 사업결산, 2009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충발연은 내년도 연구원 운영 목표를 '고품격 연구수행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으로 정하고 연구역량 강화와 경영혁신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대응 논리 개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연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의 통섭적 협업연구 및 개방적 연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기능 중심'의 8개 팀조직을 '일 중심'의 1실 3부 1센터로 통합·개편한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역량 강화와 경영혁신은 연구원의 고  
민이자 풀어야 할 숙제다.”라고 언급하면서 “연구책임제의 강화,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T/F팀  
운영, 연구원의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 등 연구원 내·외부의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하여 명품충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발연은 그간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성과와 경영평가 1위를 인정받아 충남도로부터 올  
해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의 출연금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9년도 연구비는 4억 원  
이 증가하는 반면, 경상비 지출은 7400만원을 줄여 연구원 살림을 꾸려나갈 방침이다.

## 국방과학산업 네트워크 구축 시급

- 충남발전연구원,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 세미나에서 밝혀



이명박 정부에서 방위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는 등 최근 국가·지역적 차원의 방위산업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충남발전연구원과 충남대학교 부설 국방연구소는 12월 18일 오후2시 충발연 대회의실에서 충발연 김용웅 원장과 충남대 국방연구소 길병옥 소장 등 학계 전문가, 충남도를 비롯한 논산·계룡시 담당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국방산업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충남도가 수립 중인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의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의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제언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렸다.

충남대 국방연구소 이재홍 연구위원은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발표에서 “충남은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고, 군보다 우위인 기술

수준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민-관-군이 중심이 된 국방산업클러스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체계적 연구개발과 인프라의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한 경기대학교 김강녕 교수는 “충청남도 국방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대안”이라는 주제에서 “2003년 출범한 국방벤처산업은 이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방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조립산업 위주의 발달에 머물고 있는 국방벤처산업을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 등 첨단기술기반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국방과학클러스터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를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하고, 나홀로 충남이 아닌 충청권이 공동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박사는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추진단’ 혹은 ‘국방과학운영협의회’ 등과 같은 통합운영체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방위산업은 비밀과 보안을 중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 및 전문가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국방과학산업은 충남의 또 다른 미래성장동력으로써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언급하면서 “국방과학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향후 충남의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전문가 네트워크로 발전해 주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 충남발전연구원, 2009년도 조직개편 단행

- 연간 2,000만원 예산 절감 효과 기대

충남발전연구원이 2009년도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충발연은 지난 2007년 1차 경영혁신을 통해 연구기관 중 전국 최초로 임금피크제와 성과관리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제2차 경영혁신을 단행, 기능 중심의 8개 팀을 일 중심의 1실 3부 1센터로 통합·운영하는 조직개편을 1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그간 상대적으로 연구 기능이 쇠퇴한 4개 팀을 폐지함으로써 연간 2,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연구 역량 결집으로 시너지를 높이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통한 통섭 연구를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획정보팀을 기획조정연구실로 변경하여 연구기획·조정 및 평가, 연구성과물 홍보 및 확산, 출판과 정보자료실 운영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기존 연구팀을 지역정책연구부, 공간계획연구부, 그리고 환경생태연구부 등 3개부 체제로 통합하여 도정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반면, 산업디자인연구팀은 공공디자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충남의 통합적 공공디자인 정책과 지역의 특화된 문화와 연계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현재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통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연구의 조직적 역량강화와 부서별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장 이인배 △지역정책연구부장 성태규 △공간계획연구부장 박철희 △환경생태연구부장 이상진 △공공디자인센터장 이충훈

## 충청남도 미래인재양성 국제포럼 개최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10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공주교육대학교 대강당에서 공주교육대학교, 충청남도 초·중등학교 교사,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진, 공주교육대학교 및 공주대학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미래인재양성(미술교육분야)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여기에서는 영국의 Dennis Atkinson교수(Goldsmith College, University of London)와 미국의 Karen Keifer-Boyd교수(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가 선진국 미술교육의 현황에 대하여, 충청남도의 미술교육인재양성을 위한 논의로 백경미(공주교육대학교), 김연희(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 후, 선도적 미술교육 인재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충청남도 전문계고교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워크숍 개최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11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유성관광호텔에서 충청남도 교육청 관계관 및 충청도청 관계관, 중소기업청, 충남지역 전문계고교 교사 및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진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전문계고교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계고 지원사업 현황 및 중소기업청의 전문계고교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도내 특성화 전문계고의 사례발표 및 컨설팅 그리고 향후 전문계고 인재양성을 위한 논의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충청남도의 전문계고교 특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활성화 방안 모색과 산학협력차원에서의 공업계고교 인재육성마련 방안 등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관 관계자들의 대화의 장 마련과 함께 인재육성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토론회” 개최

- 전국 시도지역혁신협의회 공동 주최



지난 9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11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원희룡 국회의원과 김재균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개최하였다.

금번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가져야 할 균형·지역주도·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 상당부분 삭제되고, 수정되어 기본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지역의 원성을 들었다.

이러한 개정안의 문제를 전국적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 회의(9.30) 및 전국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회의(10.8)가 개최되었으며, 각 지역의 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들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본 토론회는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와 이창용 대구경북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의 균특법 개정대체법안 제안과 함께 8명의 토론자들이 균특법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충청 광역경제권 심포지엄” 개최

- 대전·충북·충남지역혁신협의회 공동 주최



대전·충북·충남지역혁신협의회는 지난 11월 19일,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충청권이 당면하고 있는 광역권의 다양한 과제를 심도있게 진단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초광역개발권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된 내륙문제와 충청권 광역경제권 출범과 여건 모색, 실용정부 지역정책과 연계한 공동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권태호(세명대학교수), 김진석(전북발전연구원 박사), 양우석(홍익대학교수), 이영훈(한서대학교수), 임형섭(광주발전연구원실장), 채성주(충북개발연구원 박사) 등 지역안팎의 전문가들이 충청 광역경제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향후 광역경제권 추진에 있어서의 방안 모색에 중요한 기회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 “2008년도 제4차 지역경제연구회” 개최

- 충남지역혁신협의회 ·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 충남발전연구원 공동 주최



2008년도 제4차 “지역경제연구회”가 12월 3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2005년부터 대전·충남지역의 경제전문가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현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지역경제연구회는 충남지역혁신협의회의 연구회 조직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본 연구회는 올해 들어 4번째로 개최되었고, 현재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관련한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1주제는 한밭대학교 조복현 교수의 “세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올 하반기 들어 나라 안팎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한국경제의 실태와 향후 대처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제2주제는 목원대학교 정재호 교수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 평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하여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과제를 살펴보고 실용정부의 부동산정책방향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우려와 함께 국내시장악화 등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연구회 회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그리고 대전충남지역의 지역경제를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 “문화관광분과포럼: 충청권의 문화관광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충청남도 · 충남관광협회 · 충남지역혁신협의회 공동주최



2008. 12. 4(목), 문화관광분과포럼이 “충청권의 문화관광발전을 위한 세미나”라는 주제 아래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본 포럼은 충청남도가 2010년 충청방문의 해와 2010년 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문화관광분야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다.

2010 충청 방문의 해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한 양광호 공주영상대학 교수의 “2010 충청 방문의 해 사업전략 및 추진과제”라는 주제발표와 공주대학교 윤용혁 교수의 “2010 대백제전의 세계화의 과제”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이 두 가지 주제발표에 대하여 건양대학교 전명숙 교수, 우송정보대학 장인식 교수, 배재대학교 박근수 교수, 충청남도 문화산업과 고준근 사무관이 중심이 되어 2010 충청 방문의 해 및 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현재부터 준비해야 할 점들과 지역민으로서 국내외적으로 충남을 알리기 위한 방안을 교류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제2단계 충청남도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워크숍 개최



충청남도과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는 11월 7일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제2단계 충청남도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을 초청,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과 과제 수행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원활한 총량제 추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상진 충남수질총량관리센터장의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 환경부 유역환경제도과 조석훈 사무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진행정도와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

의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2단계 총량관리제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부의 총량관리제 추진방향과 단계별 계획 및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중소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중소도시재생 정책 수립을 위해 2008년 7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중소도시재생 정책방향과 추진계획」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의 쇠퇴실태와 원인 및 국토정책에 있어서 중소도시재생의 위상을 살펴봄으로써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사업을 도출하였다.

중소도시의 현황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활력 있는 창조적 중소도시재생”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재생”, “경쟁력 있는 경제기반 재생”, “함께하는 재생역량 강화”의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현실화할 수 있는 ‘10대 도시재생 전략사업’을 도출하였다.

‘10대 도시재생 전략사업’은 성격에 따라 정책적 재생사업(저탄소 녹색지향적 도시재생사업, 지역거점도시 기능회복 재생사업, 지역 신성장거점 연계 재생사업), 부문별 재생사업(쇠퇴주거지역 재생사업, 구도심 재생사업, 산업구조 고도화 재생사업, 기존상권 경쟁력 재생사업, 역사문화·디자인을 활용한 창조적 도시재생사업), 절차적 재생사업(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패키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전략사업별로 선진사례, 구체적 사업대상과 내용,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추진방안으로 테스트베드 시범적용을 제안하였으며, 중소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안)을 제시하여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 등 관련 주체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중소도시와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하고 법제도 정비방안으로 현 법제도를 활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법제도 제정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을 검토하여 단계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